

## 경북도,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행사로 추석 물가 잡는다!

오프라인,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추석 명절 특판전 등 최대 30% 할인 판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농특산물 극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명절 성수품의 물가안정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와 직거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행사로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기획전을 통해 구매 금액

별 최대 25%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제휴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SG닷컴을 통해서도 한가위 기획전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특히, 9월에 신규로 협업하는 G마켓에서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선물세트, 차례 음식 등 고품질 농특산물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9월 11일부터 30일까지는 1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9월 22일에는 NS홈쇼핑에서 경북도 대표 과일인 '사과' 특별생방송을 편성하고 네이버 팔도유람(18일), 현대물(19~20일) 채널을 통해서도 사인머

스켓, 사과, 배, 꽃감 등 다양한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도시 소비자 대상 정례 직거래 장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대구 북구 소재)에서 제수용 농산물 할인 판매, 축산물 특판 행사를 매주 개최한다.

9월 21~24일까지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타임캡슐 광장에서 추석맞이 경북 큰장터를 운영하고, 22~24일까지는 포항 철길숲에서 경북 우수한우 농특산물 장터를 개장한다.

26일에는 경북도청 가운마당에서 도청직원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판매전이 열려 명절선물 세트와 제수용품을 30~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만 원,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증정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타 도시에서 주최하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경북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추석맞이 대구·경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한다.  
 김주영 경북도 농특산물통국장은 "코



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진정된 엔데믹 시대에 처음 맞는 추석이다"라며 "경북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석을 맞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인니 동포사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고풍로용' 정신을 보여준 모범적 공동체로 자리매김 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월 5일 저녁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50년 전 수교 당시 2억불

에 미치지 못했던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작년에 약 260억불을 기록하는 등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해 온 우리 동포사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상부상조', 인도네시아의 '고풍로용(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정신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내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

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무지개 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했다. 공연 종료 후 대통령 부부는 무지개 합창단 단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최광수/기자

### 김영록 지사, 전남 서남권 판박미래발전 비전 발표

합평에 1조7천억 들여 축산업 융복합밸리·1만여 신도시 등 조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상의 합평군수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속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의 판을 바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합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축산업 융복합밸리, 1만여 명의 신도시 조성을 포함해 농축산, 해양관광,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구 3만 명선이 무너질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합평군이 그동안 제안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 전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해 이뤄졌다. 대부분의 합평군 제안 사업은 이상의 군수 취임(2020년 4월) 전, 군 공항 유치 공식 선언(2023년 5월) 전부터 제안된 것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특히 국도 23호선(신광-영광) 확장은 2006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합평으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5천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융복합밸리를 구축한다. 손불면, 학교면 등에 약치 없는 친환경 동물 사육 환경부터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부장 기자재 산업단지까지 국내 유일의 현대화된 축산업 전주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인 합평만 일원을 2천52억 원을 들여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휴양치유레포츠 등 해양관광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안관광 일주도로(지방도

811호·손불면 공산-학산)를 보강하고, 전망이 좋은 돌머리 해변을 야간에도 이용하도록 조명 시설을 갖춘 야행관광 보행로를 신설한다.

월야면 일원엔 1천500억 원(산단 조성비)을 들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첨단 기술과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남의 강점인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기반으로 우선 기당 4천억~5천억 원에 달하는 데이터센터 20기를 유치하고 국제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기업 등 연평균 기업 입주를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투자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2040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월야면 인근에 1만여 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갖춘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융복합 축산밸리,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빛그린 국가산단을 포괄하는 미래형 배후도시로서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갖춘 '젊은이의 첨단 도시'로 조성할 복안이다.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강화한다. 교통량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광역도로(광주 광산-합평 나산)를 비롯해 국도 23호선(신광-영광), 지방도 838호선(신광-해보) 확장 등을 국가·전남도 계획에 반영해 순차적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도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합평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지역 젓줄인 합평천에 498억 규모의 '통합 하천 국가사업'을 유치해 생태, 문화, 관광이 어

우러진 명품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대동면 일원엔 570억 원을 들여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가 가능한 종합레저스포츠타운도 조성한다.

김영록 지사는 "합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합평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판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합평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합평군은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촘촘한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청송의 맛'

청송의 자연은 순수합니다.

농부들은 그곳에 '팍팍 정성'을 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송사과,

태양과 바람이 키우는 신토불이 청송고추,

청송농산물의 새로운 다크호스, 청송자두...

산소카페 청송군이 빚어낸 '청송의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 경북도의회,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제 역할 특특



## 도내 공공기관 'ESG 경영실천계획' 수립, 1부서 1자율과제 발굴 등 실행 착수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제 역할을 특특히 해내고 있다.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에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경북도의회 ESG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와 산하 32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ESG 행정체계 준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ESG 행정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 확대(20.6%), 공직자 인식 개선(17.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지사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정책 추진 방향, 목표수립, ESG 역량제고 방안,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 후 도내 공공기관들은 'ESG 경영실천계획' 수립, 1부서 1자율과제 발굴, 책임관 지정 등 ESG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23년 6월 탄소중립, 포용성장, 상생협력, 공정투명을 목표로 하는 '2023년 맞춤형 ESG경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15건의 친환경 관광상품 및 운영, 3개 지역 환경보전 개발사업 확대, 개발사업 및 공사 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2개소 이상, 대기오염물질 전년 대비 사용량 10%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23년 8월 농업과 'K-FOOD 세계화 및 Green 성장

지원 상생자금' 60억 원(개발공사 위탁금 30억 원)을 마련해 ESG 경영 실천 우수 농식품 기업에 최저 2.0%, 최대 3.0%의 금리로 기업당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개발공사 최초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기), 청사조명 소등하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ESG 추진 운동인 "10대(열기)운동"을 에너지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공동추진 등 확대하는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ESG 경영이 도내 기업에 빠르게 정착하는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의회, 전기차 시대 맞이해 도민 불편 없도록 조례 개정

## 기축시설 전기차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제외,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 가능해져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기축시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

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신속시설과는 달리 기축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민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희수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시설 여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시정질문 통해 군위군 현안 등 해결 촉구

## 박창석 의원, 군위군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6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위군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조속히 재검토돼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과 신공항과 연결된 도로망 구축을 촉구한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가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박 의원은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공항연결 도로망에 대해 '신공항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없는

지?', '출자법인(SPC)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서군위IC 연결 도로망 개설, 팔공산 관동도로와 군위군 관동도로의 연결여부, 공항 개항 전 군위군 관동도로의 건설 가능성 등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과 대구시의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관련해 질문한다.

이어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동물화장장을 건립해야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의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박 의원은 "군위 효령고의 항공

특성화고 전환 사업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학령인구 부족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령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항공특성화고이며, 이제 관련 교육청이 경북도가 아니라 대구시 교육청으로 중복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공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효령고는 학교 인근 공항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훌륭한 환경적 우위를 바탕으로 항공분야 명문고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을 강조하며, 대구시교육청에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



박창석 의원. 윤근수/기자

# 부산에서만 아동 등 실종 신고 매년 3천건 이상..

## 반선호 시의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조례 제정, 아동등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및 조기발견을 위한 추적 장치 보급확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반선호 의원은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장애성정신 장애인 실종 예방을 돕고 실종 발생시 부산시 소속 발견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건수가 2020년 38,496건, 2021년 41,122건(+6.8%), 2022년 49,287건(+19.9%)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도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3천 건이 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의 대응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의원은 "아동 등이 실종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귀가 기간과 길경우에는 그 가족도 함께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단 한 명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실종 사건은 지자체도 예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시 차원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유형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 취약계층 중점 관리,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 조기발견을 위한 추적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연,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김희태/기자

특히, 반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 광역시도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조기발견 지원 관련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고, 14개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근거 조례가 없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실종 예방/조기 발견 위해 부산 실정에 맞게 시가 필요한 사항 조례에 규정, 안전추적장치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아동 등 실종사고시 사회적·국적적 손실 선제적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가 제정시 시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지원계획을 수립

# 김길영 서울시의원 "급증하는 한강 사고, 수난구조대 추가 설치 필요"

## 사고건수, 2020년부터 전년 대비 25%가량 매년 증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4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현장 방문을 통해 출동 건수를 반영해 수난구조대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수난구조대는 투신구 구조, 수상화재 진화, 선박 침몰 등 한강 내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기관으로 1997년 여의도 수난구조대 신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여의도, 뚝섬, 반포,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조직되었다.

이 중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역사가 가장 깊기도 하지만, 관할구역 및 출동건수가 전체 40%를 넘는다. 전체 길이 41.5km 중 여의도 관할 구역은 17.4km로 42%를 차지하고, 올 1~7월까지 출동 건수 2,172건 중 여의도 출동건수는 887건으로 41%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난구조대 인원은 19명으로 타 구조대 인원수와 동일하다.

최광수/기자

김길영 의원은 이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관할 구역 길이와 출동 건수를 반영한다면 수난구조대를 신설해 여의도수난구조대에 집중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며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수난구조대 관할구역 중 성산대교 하류부터 골든타입 4분을 넘기게 된다"며 "사각지역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관할할 수 있는 구조대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길영 의원은 출동건수 중 자살건수가 87%에 이르는 것이 주목하며 "구조 및 대응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해당 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타 부서와 협력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광수/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 공주 벤치마킹 실시

## 역사문화자원 활용 우수 지자체 방문을 통한 고양시 적용방안 연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회장 김민숙)'가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 간 고양특례시의 역사문화자원개발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및 공주시청 등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역사문화자원을 우수하게 활용하고 있는 공주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주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대백제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양특례시 역사문화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했다.

첫째 날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차담회를 갖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공주시 관광과와 간담회를 통해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대백제전 관련 현황 및 준비 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둘째 날 정책연구용역 수행자인 중부대

학교 교수진들과 함께 행사준비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이를 참고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여 고양특례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향후 용역 수행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공주시가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의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김민숙 의원이 회장, 장예선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동숙,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명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대선 (112)	문화부: 대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대선 (113)	부동산부: 대선 (117)
	경제부: 대선 (114)	오피니언부: 대선 (118)
	스포츠부: 대선 (115)	지방부: 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도의원 맞춤형 4대폭력 예방 통합 교육 실시

### 성인지 감수성 업(up)!



경기도의회는 5일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주목할 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역할'이라는 특강 제목과 같이 도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중

계를 병행하여 교육 참석률을 적극 향상 시켰다.

이날 교육은 4대폭력예방 전문강사이자 서강대 인권평등센터 소속 김영희 교수가 진행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4대폭력의 개념과 유형,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고위 공직자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역할 등으로 실제사례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세밀하게

살폈다.

김영희 교수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삶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평등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의원님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직장 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가 솔선 수범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한 정책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도민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7일 '세계경제의 변화와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채취회 교수를 초청하여 경제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건교위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을 유럽과 같은 Lever 4로 목표

건교위연구위원회 연구단체는 9월 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수 교수는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교통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목표와 비전(안),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 회장인 김

중배 위원장은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MaaS(Mobility As A Service))의 목표치를 유럽의 MaaS 통합수준인 lever4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단계적 수립방안 수립"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

인 김중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희, 김영민, 김정영, 오석규, 오준환, 이영주, 이홍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수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공공버스과 홍순환, 택시교통과 김효환, 교통정보과 이백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신현중앙 상인회와 소통

### 신현중앙 상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소통 정담회 개최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일 14시 광주시 만설카페에서 열린 "신현중앙 상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 정담회(이하 '정담회')를 개최하여 신현 중앙 상인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 신현중앙 상인회원은 "신호등 간격이 넓어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라며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상인 회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난개발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 사유지와 시 소유지 구분이 어렵다"면서 "시 소유지의 잔여 공간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영 도의원은 "인구의 증가세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주차 공간 확보 등 광주시 담당 부서와 소통해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 통장과 적극 소통하는 등 지역 상인분들의 노력에 따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달

려있다"라며 상인회의 적극적인 행동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및 신현중앙 상인회원 1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경기도, 광주시 등 정담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추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는 민관 협력 기반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필리핀 보홀 한국연구소 설립 및 양성 인력에 대한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 매칭 사업을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델은 빈곤 문제를 안정적인 인력 양성과 고용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확장성과

사회자원 재생산의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민간 주도의 선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필리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지속가능발전 실천 과제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실천은 지역 균형발전, 경기 북부의 풍부한 자원과 환경에서부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방면의 고민과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변화 대응에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

### 경기도, 5~6일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주제로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공동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RE100 플랫폼, 청사 내 1회용컵 쓰지 않기, 7일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등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평양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포럼을 표방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대기오염과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주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9%가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 최대배출국가 3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100대 저배출국가의 16배에 달한다"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국가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김상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표면을 냉각시키는 반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태양빛을 흡수해 대기의 온도를 올린다"며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에 '동전의 양면' 효과를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천호 전(前)국립기상과학원이 '인간과 지구의 공존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 뒤 청중과의 대화를 나눴다.

전문가와 도민의 공감토크 '미세먼

지 공감 토크'에서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인자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줄리안 퀴타르트(Julian Quintart),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용민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 박희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김희라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원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도의 대기질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정책,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2일 차인 6일에는 ▲도심 대기오염물질 관리(동북아 지역별 대기 현황 및 개선 연구 ▲대기오염과 탄소중립(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상관성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대기오염 관리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법(동북아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김범상/기자



# 임상오 경기도의원,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

### "학원교육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일희)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평소 지역 내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날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북부본원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 후에 임 의원과 연합회 임원들은 지역 내 학원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저출산 및 학교 내

방과후교육으로 인한 학원 수요 감소와 불합리한 규제 등 학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학원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평생직업시대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한 학원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왔다. 획일적인 공교육을 보완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등 학원 교육의 장점이 잘 발휘되면서 학원 교육자가 지역 내 교육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제1회 광주시 소상공인의 날' 개최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청석공원에서 '제1회 광주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의 단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회식을 축하했다. 행사는 1부 소상공인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부 소상공인 노래자랑, 초대 가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제1회 소상공인의 날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 호도하는 행태 중단하고 정치중립·공공성 회복 약속해야

시의 지원 끊긴 것처럼 호도해서 1차 후원금 모금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2차 모금 나선 느티나무도서관 문제 지적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최근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거짓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도서관 측에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영숙 관장은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에 '느티나무는 함께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입니다(8월 18일자)'라는 글을 통해 '반성하고 공공성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경고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회유로 보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그간 정치편향성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스스로 밝힌 입장마저 뒤집고 마치 피해자인양 시를 공격하며 후원금 모금에 활용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5월 도서관에

대한 시의 지원비가 모두 끊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후원챌린지' 행사로 5000 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느티나무도서관에 꾸준한 지원을 해왔고, 올해에도 1억 640만원(국·도비 6480만원, 시비 4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올해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사라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서 1차 모금을 했고,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시민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2차 모금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게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정치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를 공격하는 폄소로 이슈와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박 관장이 '공공의 자산' 운운하는데 그간 자신과 도서관이 어떤 행위로, 무슨 비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을 일삼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박관장은 2020년 총선 때인 더불어민주당 정

### 안산시 "2개월령 이상은 의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 전자개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인천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른 하늘을 위한 'Blue Sky 인천, 2023 대기환경정책 포럼' 공동 개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 관리를 위한 첫발 내딛어

인천광역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월 5일 인하여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연수구 송도)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Blue Sky 인천, 대기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포럼은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주관했다. 'Blue Sky 인천, 대기환경정책포럼'은 '푸른하늘'과 '맑은공기' 조성을 목표로 대기관리와 기후대응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발전·정유사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0~2024)',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꾸준히 감소되는 등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경우를 보면 연평균 국가환경기준(15 µg/m³)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10µg/m³)을 상회하고 있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 기반 효율적 대기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박재완 서기관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과 관련한 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은 대기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12µg/m³ 달성 등을 목표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등 대기질 관리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진형아 연구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기후변화와 대기질 상호작용 및 통합관리 방안' 연구현황을 발표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 인천시의 대기환경 현황 분석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78%(2021년도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준)를 차지하는 발전·정유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사와의 긴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Blue Sky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



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용원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해 인천시의 정책방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오늘 포럼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

## BIAF2023, 콘텐츠 산업의 비전(Visions)을 논하다!

BIAF2023 학술포럼 사전등록이 9월 1일부터 10월 16일 17시까지 진행된다. 학술포럼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를 다루는 3개 국제영화제와 4대 부천국제문화축제의 전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0월 21일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주제는 '국제영화제 5.0 : 다양한 형태의 관객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

응하기 위한 영화제의 전략'으로 바이코누르국제단편영화제(Baiqonur),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Zagreb),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Annecy)의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영화제의 작품들과 관객들로부터 나타나는 영화제의 동향 및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를 논한다. 2부 주제는 '부천시 시승격 50주

년,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업'으로 부천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딩에 기여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등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의 역사를 되짚고 지향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학술포럼 2부는 온라인으로도 송출되어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축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술포럼 사전신청은 BIAF 누리집에서 이벤트 '학술포럼'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콘텐츠 산업의 비전(Visions)'을 논하는 학술포럼과 함께, BIAF2023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윤희민/기자



# 전남도,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명량대첩축제 8일 개막

## 국내 최초 확장현실 활용 미디어 해전·불꽃쇼 등 프로그램 풍성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명량대첩 승전지 울돌목 일원인 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에서 열린다.

명량대첩축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과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다.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강강술래, 수문장 교대식, 대규모 행진(퍼레이드), 만가행렬 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에 대폭 확대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8일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이자 국내 최초로 확장현실을 활용해 시도되는 관객 몰입형 공연 'XR이머시브(Extended Reality Immersive) 미디어 해전'이 압권이다. 현장감 넘치는 배우들의 공연과 극도의 몰입감을 더해 주는 아나모픽(Anamorphic) 3D 영상이 어우러져 명량대첩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해전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미디어 해전에 이어 진행되는 1천여대의 대규모 공중 드론 해전은 역사의 현장 울돌목 상공에서 연꽃 불꽃을 활용해 박진감 넘치는 해전 장면을 연출해 명량대첩 승리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락밴드 '노브레인'이 관객에게 열정적 무대를 선사하고, 이어 명량대첩의 승리를 만반에 알

리게 화려한 불꽃쇼가 울돌목 상공을 수놓으며 대미를 장식한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주무대인 해남 명량무대와 성문광장, 진도 승전무대, 대교광장에서는 ▲트로트&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강강술래 밤(BAM) ▲케이-팝(K-POP) 커버댄스 ▲해군 홍보대 공연 ▲치어리딩 페스티벌 ▲청소년가요제 ▲국악과 락, 재즈가 어우러진 국악재 공연 등 다양한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알차게 마련됐다.

또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군-해경 해상퍼레이드 ▲경남도와 전남도의 이순신 축제 간 연계프로그램인 통제영 무예단과 승전주 초청 공연 ▲보성군과 장흥군이 함께하는 조선수군재건 프로그램 등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

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명량대첩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장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동 안전점검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한 준비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축제기간 제1진도대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해남군과 진도군 행사장을 오가도록 준비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명량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승리와 합성을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축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역사문화 축제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남원시 금동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금동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국비 43억원 확보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에 금동노후주거지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도시재생사업으로 남원시 등 총 11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남원시 금동 일대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국비 43억원을 포함하여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유형은 오래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꾀하는 도시 활력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나도, 너랑, 언제나 함

께 도랑마을'사업은 '함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도랑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0년대 수재민의 이주 정착촌으로 노후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랑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관리·돌봄지원사무소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서비스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도새재생 역량이 탄탄하게 쌓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현실 안주 넘어 미래에 집중! 순천시 2024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부서 칸막이 없애고 융복합 보고로 2023정원박람회 이후 미래동력 발굴 집중

순천시가 한발 앞선 2024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회는 ▲생태 ▲문화 ▲경제 ▲정주 등 4개 분야에 대한 부서 융복합 보고로 진행됐으며, '25년 지역특화 국비 발굴 계획'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시는 지난달 18일에 시의 미래 비전과 철학에 대해 공유하는 사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람회 전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국·소·별 토론과 속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업무보고회는 2024 신규시책 발굴과 핵심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정원박람회 이후 시가 주력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도 진행됐다.

분야별로 ▲생태분야(국가해양정원 조성, 동천 국가하천 조성, 동천하구 습지복원) ▲문화분야(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문화 복합시설 및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경제분야(승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 미래첨단산업 육성) ▲정주분야(지역발전형 공공의료체계 확립, 대자보도시 조성)



등 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제와 생태 등 기본적인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자들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생각의 높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진행된 ▲생태 ▲문화 분야 보고에 이어, 6일에는 ▲경제 ▲정주 분야 보고가 이어지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부서별 검토와 예산 반영과정을 거쳐 내년도 새해 업무보고에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 함평군, 전라남도와 함께 미래 발전 비전 발표

## 6개 분야 15개 사업...총 1조 7,100억원 규모



이상익 함평군수는 김영록 전라남도 시사와 함께 5일 전라남도청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이 꾸준히 지역 발전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낸 끝에 이뤄낸 성과다.

이날 발표된 비전 6개 분야는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벨리,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다.

15개 세부 사업으로는 ▲AI 첨단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AI

연계 데이터센터 유치, ▲광역도로,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838호선 확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며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이다.

함평군은 이번 비전을 실현해 AI 첨단 축산업과 해양관광,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SOC 확충 및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함평 미래발전 비전 발표는 함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작점으로써 의미가 있다" 말하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되어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하세요!"

## 만 60세 이상 대상 인지 선별, 진단, 감별 검사 실시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인지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인 인지 선별 검사는 별도 예약 없이 10~15분 정도면 가능하다.

인지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의심군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 후 감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센터에서는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 ▲감별-진단 검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위생용품 13종) 제공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서비스(지문 등록, 배회 감지기 및 인식표 발급) ▲치매 예방-인지 강화 프로그램(치매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치매 환자 센터 운영 및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조기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센터에서는 고령화 시대 난제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후 매월 도서 지역 찾아가

는 치매 진단 검사, 치매 안심 마을 운영,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실종 예방 사업,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영울/기자

# 나주시, 청렴시민감사관·저연차 공무원 청렴워크숍 개최

## 국립나주숲체원에서 70여 명 참여...공정·투명·청렴 나주 실천 앞장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달 29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청렴시민감사관과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 청렴도를 제고하고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특강과 숲길 걷기, 손수건 염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A직원은 "이번 워

크숍 통해 청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긴장과 피로까지 해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병태 시장은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당연한 과제이자 자존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저연차 공무원 역시 앞으로 우리 나주시를 이끌어갈 세대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공직사회가 유지되도록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은 종합·부분 감사 참여, 일상 시민 불편사

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정·투명·청렴한 나주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김영안/기자



# 목포시, 문학박람회·양대체전 성공기원 음식문화개선 교육

##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대상 교육신청자 대상

목포시가 오는 9월과 10월 목포시를 문화와 체육의 장으로 뜨겁게 달궈 줄 '2023 목포문학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음식문화개선 미식아카데미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달 29일(목포 벤처지원센터, 집합)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8일(현장).12일(집합).19일(집합).26일(집합) 5회에 걸쳐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모범음식점과 으뜸맛집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희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직원 친절서비스 및 몸가짐, ▲목포형 엔데믹 경쟁력 강

화, ▲경영철학 수립과 상품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 ▲목포형 브랜드 가치 창출, ▲타지역 우수 외식업소 선진지 음식점 견학, ▲고객 접점 서비스, ▲친절서비스 기술 등으로 구성했다.

본 교육을 마친 후에는 교육대상 외식업소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을 이끌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절·경영마인드, 메뉴 상품화 전략, 브랜드 마케팅까지를 포괄한 이번 미식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가 개선되어 다시 찾고 싶은 목포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구례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추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승용차 28대, 화물차 9대 추가 보급



전남 구례군은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7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주민, 법인, 기관이다.

군에서 2차로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는 28대(일반)이며, 전기 화물차는 9

대(일반 7, 택배 2)이다. 보급 차종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3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95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신안군,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자살은 작은 관심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신안군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 (9월 10일)'을 맞이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9월 10일로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9. 4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암태면 신안소방서, 신안경찰서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홍보관 및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마음안심서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평가, 우울 선별검사,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결과 상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자살예방·정신건강 상담전화 안내 실시 등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우울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관계자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예방에 관심을 두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마음이 힘들 때는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

# 전북도정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시즌2돌입

## 도지사 주재 벤치마킹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시즌2 개최



전북도는 도정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재적 발전전략인 팀별 벤치마킹 시즌2에 돌입한다.

도는 5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 '팀별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유치지원실 20개팀을 시작으로 오는 9월말까지 19개 실국이 순차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치마킹은 도정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지난해 첫 팀별 벤치마킹

에서는 268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제출돼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를 선정, 도정에 접목시켜 추진 중이어서 이번 시즌2에서도 325건 중에 여러 혁신방안 등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인 팀장들이 직접 타시도를 방문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도지사와 대면한 자리에서 논의하며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도정 전체 구성원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벤치마킹 시즌1에서 발굴된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현재 도정에 적용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시즌2의 시작을 장식한 기업유치지원실 보고회에서는 '기업유치 관리 시스템 구축', '1기업 1공무원 매뉴얼 제

작',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수 제안됐다.

김 지사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더 질서있게, 하지만 유연하게 도민을 위한 도정혁신의 길로 나아가자며, 팀장들의 벤치마킹 보고를 들어보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발전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버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고 격려했다.

또, "도정의 성공여부는 팀장의 역할에 달려있다. 팀장이 팀별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도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검토해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선진농협 자재센터' 개점식 개최

## 농자재 통합 구매 시스템 구축으로 농민편의 증진 기대

진도군 선진농협 자재센터가 지난 4일(월) 군내면 금골 일원에서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윤재갑 국회의원,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도의원, 진도군의원, 농협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선진농협 자재센터는 최근 각종 농자재비용 상승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2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건축기간을 거쳐 도·군비 12

억원과 사업비 초과분이 포함된 약 11억원은 농협의 자부담으로 올해 7월 연면적 1,494.32m<sup>2</sup>(452평) 규모, 지상 2층으로 완공됐다.

1층 판매장은 비료, 농약, 농자재, 일반농기구 등 고품질의 다양한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취급하고, 2층은 지역 농업인들이 정보교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장을 조성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리 군의 기간산업인 농업과 농민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가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영농편의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화순군 운주사 문화관 2023년 소장품 기획전 '빛의 감각' 전시 개막

## 9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순군 운주사 문화관에서 색깔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는 2023년 9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4일간 계속된다.

'빛의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 두 곳에, 42점의 평면 회화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빛과 색상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간을 여유 있게 배치하고, 쉬어갈 수 있는 좌석도 마련했다.

공과 참새(박종경 작), 축일(박동인 작),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최향 작), 눈 덮인 밤 언덕(한희원 작), 제라늄(강연국 작)과 같이 빛의 원색(Red, Green, Blue)이 잘 반영된 작품들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빛의 감각' 전시는 빛을 사용하여 차원적인 감각과 효과를 내는 동시에 색의 다양한 면모를 살려 밝고 아름다운 경관을 준다. 빛과 색상이 제공하는 안정감과 위로,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치유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운주사 문화관 제1전시실에서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다. 화순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용 공간과 작품에 대한 호평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8경'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10분) 작품과 모니터 갤러리에 담긴 놀라운 비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기타 문의는 문화관으로 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 '불금불파' 버스 탔더니 강진 투어 한방에

## 매주 금·토요일 광주~강진 왕복 모두 4코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한방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주인공은 강진 '불금불파' 셔틀버스 타기다.

5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진 병영면 일원에서 열리는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셔틀버스를 가동한다.

셔틀버스 코스는 모두 4개.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A코스는 광주 유스퀘어 2번홀에서 출발해, 강진 병영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한

골목투어, 불금불파 축제장 순으로 운행한다.

금요일 오후 1시40분에 출발하는 B코스는 광주 유스퀘어, 강진다원, 백운동원리, 무위사, 하멜기념관, 불금불파 순이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C코스는 광주를 출발해 강진내 사의재, 마량늪두산시장, 가우도, 불금불파, 오전 11시10분에 출발하는 D코스는 광주, 사의재, 다산초당, 세계모란공원, 시문학박기념관, 한골목투어를 진행한 뒤 불금불파에 참여한다.

모든 코스의 최종 목적지는 불금불파 행사장이다. 셔틀버스 요금은 왕복 1인당 1만원이다. 광주로 돌아오는 시간은 불금불파가 마무리되는 오후 8시, 광주 도착 예정 시간은 당일 오후 9시10분께다.

특히 이번 불금불파 일정에 추가된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는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온 마당극 '장사의 신'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6시30분까지 공연한다. 장사의 신은 강진 병영상인을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노래와 연기를 가미한 마당극 형태로 풀어 재미를 느끼

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불금불파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금호고속-버스한바퀴'를 검색, 예매하면 된다.

추준호/기자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국회에서 제2회 경북 'super 화공 포럼' 개최

에너지 지산지소로 경북이 산유국 되고, 베이비부머 귀향귀촌 등 다양한 의견 나와...



경북도는 2018년 11월부터 야심 차게 시작한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을 통해 국내외 저명한 강사 234명이 강연한 가운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슈퍼화공포럼을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기업인들과 기존의 화공 특강 발표자,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

고 있으며, 이는 지역 출신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슈퍼화공포럼이 지방시대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2회 슈퍼화공포럼 주제로 '지방시대 경북 대한민국 선도전략'을 내걸고 전문가 4명의 주제·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모두 화공에서 발표한 특강 강사들로 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패널로는 함일환 (주)에이치에너지 대표, 한희원 경북 독립기

념관 관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포럼의 좌장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슈퍼화공포럼의 취지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에 이민청)처럼 경북 안중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면서, "경북이 선도해 대한민국·경북의 새 비전과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슈퍼화공포럼을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화공 174회에 '지방행정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장학재단 이사장은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라고 말했다.

또 신공항 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포스텍이 주도하는 양자컴퓨터 개발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화공 57회에 '귀향정책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과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113회 화공에서 '에너지산업혁명,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함일환 (주)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에너지

지산지소로 우리도 산유국이 되자"라면서,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등 분산에너지 지역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158회 화공에서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경북독립기념관 한희원 관장은 "경북도는 호국의 성지라는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체성"이라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업인과 학자들을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여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첫 회에 이어 슈퍼화공포럼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경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슈퍼화공 포럼은 10월 '그린전환시대 경북 친환경·ESG 경영 전략'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금정구 금정산성수호대, '좌수영 성지의 별이 되다' 행사 개최

금정구·수영구, '문화재를 활용한 이야기로 뭉친다',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자체간 협업프로그램 운영 추진

9월 8일까지 사전 예약 후 추첨으로 참가 확정 참가비 5,000원

**2023 부산 금정구 생생문화재 역사여행**

Since 2019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좌수영 성지의 별이 되다

**기간**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금정산성광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

**내용** 금정산성 수호대 + 수영성 이야기 테마 콘텐츠 체험과 수영야류 등 무형문화재 공연

**대상** 누구나 150명 ▶ 참가비: 5,000원/인

\* 이 프로그램은 2023 생생 문화유산 금정구(금정산성 수호대) + 수영구(수영성 이야기) 지자체간 협업프로그램입니다.

주최·주관 금정구 부산광역시 문화재청 운영

## 안동관광두레 사업 첫 성과, 기념품 샵 '안동단' 오픈

### 갤러리형 기념품샵 '안동단' 탄생, 원도심 관광거점 예감

안동시와 안동관광두레센터는 지난 4일 안동관광두레 지원사업체 첫 오픈 파일럿(맛보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안동관광두레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 육성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컨설팅·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최종 단계인 오픈 파일럿을 실행하는 '안동단(대표 윤이서, 영가로 12-1 3층)'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다.

안동단은 안동을 주제(퇴계이항, 하회탈)로 한 갤러리형 기념품샵이다. 단아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기념품을 앞세워 전 세대를 겨냥한 원도심의 관광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날 오픈 파일럿 행사에서는 다양한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안동단의 오픈을 축하하고 향후 긴밀한 협업을 위한 결속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안동시는 '안동단'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모든 관광사업체가 오픈 파일럿 행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3개 업체를 신규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고유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안동단의 오픈을 축하하며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원도심 관광의 중추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

역 관광산업에 필요한 관광사업체 발굴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농촌일손돕기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9월 5일 농촌일손돕기에 나서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최근 농가주의 교통사고로 고추 수확과 선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회원들이 지원을 나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농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안형욱 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도록 했다."라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한 가치를 높여

시간이었고 농업인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낀 하루였다."라고 말했다.

일손을 지원받은 일월면 용화리 이○○(67)씨는 "요즘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회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비 지원,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상 차리기 등 다양한 봉사과 나눔 활동을 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행정 통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 만들기 박차

천영기 시장, "민선8기 2년차, 현안 사업 순항되도록 점검·지원에 총력, 사업적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 노력 써줄 것" 당부



통영시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 까지 3일간 9개 읍면동 16개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는 출범 1년을 훌쩍 넘어 어느덧 2년차를 달리고 있는 민선8기 통영의 주요사업장 중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실제 현장 여건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쁜 일정 및 가을장마 속에서 추진한 이번 현지 확인은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해야 미래 100년 통영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다는 천영기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일차(8월 28일) 도산, 광도, 용남, 도산, 무전지역 ▲2일차(9월 4일) 옥지, 한산 도서지역 ▲3일차(9월 5일) 산양읍, 봉평동, 중앙동 지역 등 지역별로 안부해 진행했다.

천영기 시장은 해당 부서장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각 사업장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살폈으며, "민선8기 2년차부터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평소 강조하는 바처럼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

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우천 등의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사랑면 일부 주요사업장 등은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첫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GADLEX), 구미에서 개막

9.6~8일까지 3일간 국내외 70여개 기업 참여, 전시관.세미나.수출상담회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6일 구미코(Gumico)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경북도 첫 항공·방위·물류 전시회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요 기업이 분사 이전과 지역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혀 즉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공군이 후원하고,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천르바오 주부산중국총영사, 박철호 공군군수사령관, 기업체 대표 등 주요

내빈과 관람객 1,0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개막식 현장에서 STX(박상준 대표), 한화시스템(구미사업장장 이기택).LIG넥스원(남부지역장 권병현),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중문센터장) 등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의 첫발을 땀다.

특히, STX는 이번 협약을 통해 STX 에어로서비스 본사와 사업장의 단계적인 경상북도 이전에 합의했다.

또 경상북도 내 △항공 MRO산업 육성 및 항공 MRO 인력 양성 △해외진출 유망기업 발굴 및 STX의 Global B2B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화시스템.LIG넥스원과과는 해외 항공방위기업과 지역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통한 첨단 항

공전자방위산업 육성 협력을, KIC중국과는 경북 항공.물류기업의 해외 중국 진출 활성화와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공항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7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처음 개최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경상북도는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며 도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전시관 △항공(UAM)·방위·물류 세미나 △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진로 탐색 콘서트 △관련 대학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남방항공(중국), 엠브레어(브라질), ATR(프랑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STX에어서비스, UPS, FedEx, 순평(중국) 등 각 분야의 선도기업과 더불어 한국항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에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인 AIRBUS, IAI, SAFRAN, GE Aerospace, BELL 등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절충교역을 활용한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달 절충교역 대행기관인 항공우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해외 선도업체와 절충교역이 가능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존 전자.반도체산업의 영역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품.소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의 항공·방위·물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Regional Jet) 제작사인 엠브레어(Embraer), 세계 최대 특송사인 페덱스(FedEx)와 항공.물류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첫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네 이어 앞으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산업 분야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기술과 혁신이 만나는 플랫폼이자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북도는 박람회 참여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후속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에는 기업.대학교.경북도.산하기관.시군간의 협력 네트워크인 ‘항공산업싱크넷’을 발족하고, 12월에는 글로벌 물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글로벌 항공물류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질 높고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영주시는 지난 6일 10시, 148아트스퀘어 다목적실에서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역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공동위원장 박남서, 조훈)가 주관했다. 행사는 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종사자, 읍면동협의회 위원,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는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축하, 특강, 사회복지 윤리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평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지역자활센터 이소현 ▲영주시니어클럽 김판오 ▲영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

선영 ▲사랑지역아동센터 이인숙 대표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 이어 ‘사회복지인, 자신을 돌보다’라는 주제로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장의 사회복지인을 위한 자기 돌봄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 표창 수상자들은 “먼저 2023 지역사회복지대회 유공자표창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회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종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긍지와 보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질 높고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가덕도신공항’24년 국비 5,363억 확보로 본격 궤도, 인력 수요 선제적 준비 나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대비, 지역 항공인재 부산에서 키운다!

부산이 직접 키운 항공 전문 인재가 지역 항공산업 인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중요성 강조

박형준 시장, “관문공항 위상 확고를 위해 기 개항과 기반시설 구축, 개항 후 안정적 운영과 연계된 항공산업 발전이 튼튼바퀴처럼 잘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해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서부산권 제2집무실(부산도서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서부산 협의회’를 열고 지역 항공분야 인재 양성과 항공산업 본격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4일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와 2024년 국비 정부안에 5,363억원 확보로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항공 전문 인재 양성을 부산이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은 올해 3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2029년 조기개항 상세 로드맵’을 확정된 것으로 3,500m 규모의 활주로 1본이 우선 반영되었으며, 향후 2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검토되었다.

58기 계류장 구축, 1만718대 주차장 확보, 공항 접근도로.철도 연결, 여객.화물터미널 조성 등 24시간 열려 있는 국제적 항공.물류 허브공항을 위한 필수 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을 통한 공항경제권 활성화와 공항복합도시 조성

도 더해져 국제 관광 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서 가덕도 신공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항공 전문 분야 일자리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항공 분야 인재를 부산이 직접 키워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안정적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형준 시장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부산항공고등학교(가칭)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사상구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항공 분야 체제 개편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들었다.



# 남해관광문화재단,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출시

오는 16일, 부산서 첫 출발, 총 3회 시범운영 예정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문업체 (주)펫츠고트래블과 협업하여 ‘남해에서 멍멍’이라는 이름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남해에서 멍멍’ 여행상품은 당일 여행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며, 저렴한 가격(2만9000원)에 이용 가능해 많은 반려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2022년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방안 연구’결과 연간 약 1조 3,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28만원으로 일반 여행객에 3.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을 겨냥하여 해당 상품을 기획·출시하게 되었다”며 “반려동물 여행상품 출시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에서 멍멍’ 여행상품은 (주)펫츠고트래블 홈페이지(petsgo.kr)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9월 16일, 10월 14일, 10월 21일 3회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이윤준/기자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갈라콘서트 50스타즈 Ⅲ'공연 51인 51색, 다채로운 목소리의 매력을 만나다

대구성악가협회 소속,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의 대잔치

스무 번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을 앞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대구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대구를 대표하는 성악가 50여명이 출연할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속 유명 아리아와 중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 네 편의 오페라를 한꺼번에! 더욱 풍성한 오페라 갈라콘서트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성악가협회가 함께 콘서트를 주최하는 것은 올해로 삼년째다. 작년까지의 공연이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들을 관객에게 선보인 공연이었다면, 올해 콘서트는 네 편의 오페라를 주제로 한 갈라콘서트는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 오페라 전문연출가 표현진이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카렌’, ‘박쥐’ 등 관객들이 사랑하는 네 편의 오페라 속 주요 아리아들이 하차투리안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박준성의 지휘로 펼쳐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



되는 점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성악가협회에 소속된 성악가 50여명이 선보일 환상적인 앙상블이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앙상블 두 명의 소프라노, 여덟 명의 메조소프라노, 열세 명의 테너, 일곱 명의 바리톤, 한 명의 베이스 등 총 51명에 달하는 성악가들이 공연에 참여한다. 여기에 대구오페라하우스 상주단체이자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인 디오오케차투리안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박준성의 지휘로 펼쳐질 예정이다.

정갑곤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대구성악가협회가 구축해 온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음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주선생 대구성악가협회 회장은 “지역 예술단체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과 극장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콘서트 시리즈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50스타즈 Ⅲ’의 입장권은 전석 2만 원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서 예매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 의성형 AAM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다!

의성군 미래항공 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김주수 군수, "의성군·대학·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대학졸업후 지역 기업 취업,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경운대학교와 항공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 학생 지원 약속"



의성군은 지난 5일,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에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전략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의성군, 경운대학교, (주)가이온, 나르샤텍, (주)블로랜드, (주)브이스페이스, (주)삼정솔루션, (주)아크로사, (주)에이엘피, (주)에프엠웍스, (주)유맥에어, (주)케이제이, (주)퀵터니언, (주)프리뉴, (주)한컴인스페이스가 참여하여, 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성군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의성군은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조성, 기업정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경운대학교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과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세부 협약 과제로 삼았다. 이후 이어진 세미나와 패널토론에서는 K-UAM 로드맵과 그랜드 챌린지 추진 방향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선진 지자체의 AAM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함께, 의성군 미래항공 모빌리티 추진전략 공유로 의성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운대학교 김동제 총장은 "미래항공 모빌리티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데, 항공 특성화 대학인 경운대학교가 가진 기술과 인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며 관련 산업에서 의성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를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의성군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성군-대학-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경운대학교와 항공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26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대상 수상 기업 현판 수여식' 개최

이달희 경제부지사, 수상기업 직접 찾아 현판 전달



수상자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지원, 해외 산업 시찰 우선 선정,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우선 추천(수상자만 해당),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2023년부터 소속 기업에 1일 푸드트럭 이벤트 지원을

경북도는 지난 1일 힐튼 경주에서 치렀던 제26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이어 직접 대상 수상기업을 방문해 수상자를 격려하고, 커피차 이벤트를 제공하는 '대상 수상기업 현판 수여식' 행사를 6일 개최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산업평화대상의 근로자 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창영 화신정공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과 사용자 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상룡 아진카인텍 공장장의 소속 기업을 연달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운 특전으로 대상 수상기업 직원들에게 행사 당일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커피차 이벤트를 지원했다. 근로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화신정공 김창영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노사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활동

전개,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정착·유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자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진카인텍 김상룡 공장장은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 갈등 최소화 및 입장차이의 절충·관리에 힘썼으며, 현장경영을 중시해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앞장섰다. 또 농촌 일손돕기, 지역 독거노인 지원, 장애복지시설 봉사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모범을 보인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한편,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은 1997년부터 올해로 26회째를 맞고 있으며,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해온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지금까지 289명(근로자 146명, 사용자 14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한 덕분에 올해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 한잔씩 드시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위한 세계적(글로벌) 공감대 확산 문화관광 매력도시로의 도시브랜딩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부산시는 여성가족부와 지난 6~8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코윈(KOWIN))'를 개최하고 있다. '코윈(KOWIN)'은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번째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

국제행사로, 전 세계 62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한인 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지역 간 여성정책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해왔으며, 부산에서는 2010년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데, 특히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

기조강연에서는 일본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나리' 레이더랩 대표가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40세의 나이에 스타트업에 도전해 일본인의 3분의 2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업을 개발한 본인의 경험과 차세대 한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올해 코윈(KOWIN)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위한 세계적(글로벌)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특별세션과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별세션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지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부산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부산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한인 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은 물론,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부산이 큰 역할을 하겠다"라며,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위한 세계적(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관광 매력도시로의 도시브랜딩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청소년운영위원회, 2023년 경상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지난 9월 2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 경상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우수상(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매년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장으로, 올해는 총 16개 시·군 30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12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본선에 진출해 각각 정책제안을 발표한 뒤 5명의 심사위원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송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서틀버스 보급을 통해 교통소의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 보장'이라는 의견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송군에서 개최된

만큼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소속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봉사동아리, 댄스동아리 '뽕뽕', 밴드동아리 '코베루스') 청소년들이 지구비누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활동과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대회에 참여하는 약 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정책대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쓰는 한우정액 버리지 말고 바꿔주세요" 예천군농업기술센터 한우유전자원관리실 사업 실시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부터 한우농가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정액을 수거해 필요한 농가에 교환해주는 '한우유전자원관리실'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한우 개량이 진행

됨에 따라 근친교배로 인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의 범위가 크게 제한돼, 대부분이 각 농장의 질소탱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용하지 않는 정액을 수거해 필요한 농가에 1대 1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유 정액 현황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교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정액 활력도 검사, 송아지 설사병 진단, 우유 내 항생제 검사 등도 실시한다. 성경경 소장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축산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관내 한우농가의 원활한 정액사용과 선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참가해 다양한 먹거리 선보여



봉화군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에서 '경북식품의 혁신, 세계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경상북도가 주최·주관한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142개 부스(170여 개 업체 참여)로 이뤄진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는 지난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푸드테크, 증가음식, 김밥관 등 전시행사와 수출상담회, 요리경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화군에서는 봉화군충호텔 농업회

사법인(주), 솔지원, (주)원애그, 삼육네이처세븐 등 4개의 식품제조기업체에서 참가했으며, 꽃병이효도환(봉화군충호텔), 흑도라지진액(솔지원), 카스테라(원애그), 삼육두유(삼육네이처세븐) 등을 선보이며 시음회와 전시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행사 참여를 통해 봉화군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상북도 내 여러 시군의 다양한 식품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61개소 전국 최다 선정

## 사업공모 선정 결과 161개소 376억 원 투입(국비 265, 지방비 111)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다 국비 265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 376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전국 최다 국비 확보 성과는 전년(182억 원) 대비 8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정책 선제적 대응과 사전컨설팅 적극 참여, 시군 담당자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체계적으로 공모를 준비한 결과이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 공공건축물(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선정하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방방 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

을 설치해 에너지 성능 향상은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건축 정책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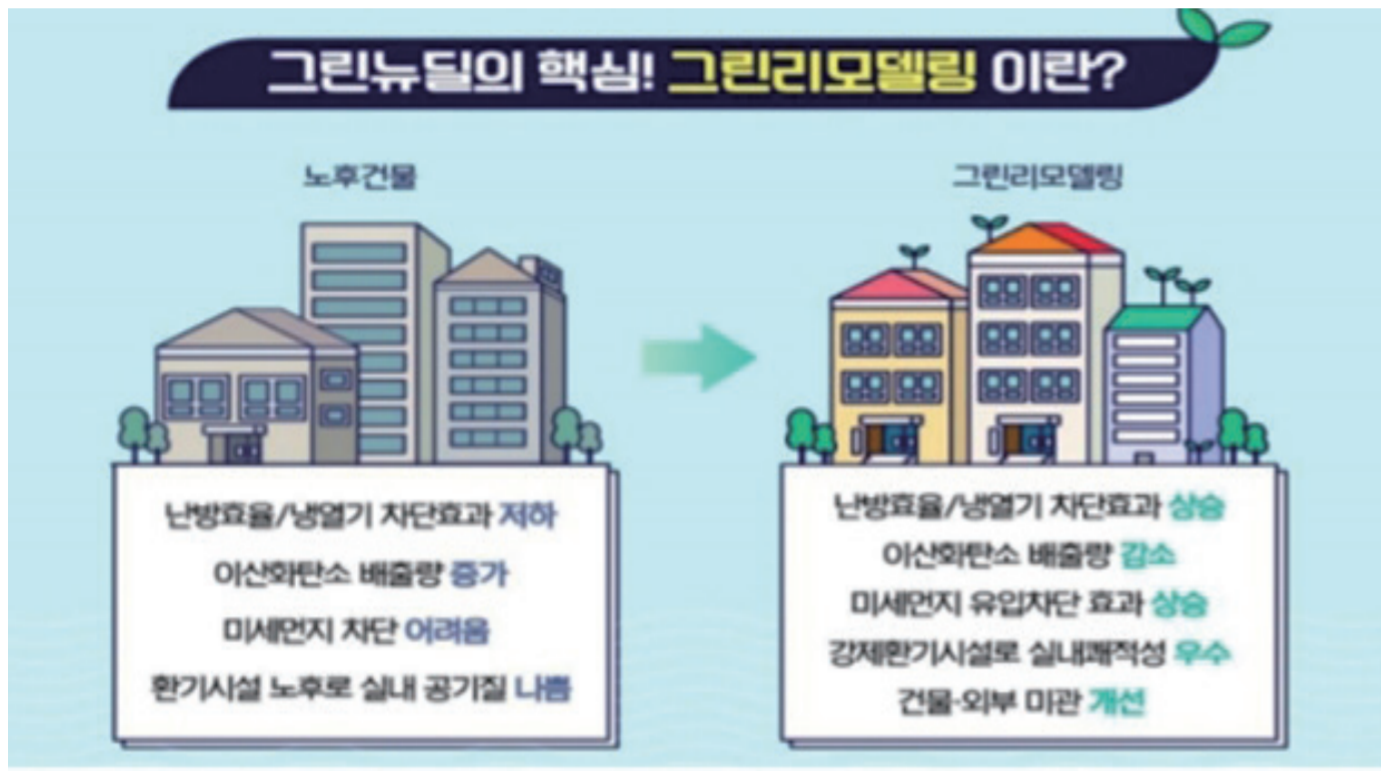
사업대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어린이집 및 보건소와 23년부터 확대된 도서관, 경로당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전년도 62개소보다 99개소가 증가한 총 161개소로 세부용도로는 경로당 146개소, 도서관 7개소, 보건소 3개소, 어린이집 4개소, 치안센터 1개소이다.

특히, 일반사업 대비 2배 국비가 지원되는 시그니처사업은 사업효과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태백시 구문소 어린이집이 선정됐으며, 중앙도서관의 경우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사업 전후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무더

위 또는 한파 심화로 이용되는 경로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삶의 질 향상 등 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동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이 무더위로부터 이용되는 경로당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는 도서관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서울시, 소공인 제조역량 키운다... 700억 투입해 수작업→자동화, 숙련인재 육성

###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서울 2탄...소공인 성장자금 신설, 27년까지 인재 7천명 육성



서울시가 '제조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어 소공인 제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수작업 현장을 단계적으로 스마트화하고, 소공인 기술경진대회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도시제조업 현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청년 인력의 산업현장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앞으로 5년간(2023-2027) 소공인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총 700억원을 투입해 소공인 성장자금을 신설하고, 단계별 스마트화 보급-확산을 시작한다. ①기술혁신 정책자금 신설 및 경영 컨설팅 확대 ②스마트 제조환경 구축(400개사) ③숙련기술인력 양성(7천명) 등 3가지 사업이 주요 골자다.

시는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3~'27) 수립했고 '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을 투자하여 4,200억원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는 3개 정책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분야 '안전망 강화'에 이어 두

번째 '혁신역량 제고', 세 번째 '집적지고도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한 경영환경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했던 유망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년간 서울시가 500억원을 출자해 기술개발, 기술고도화, 스마트화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24년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하나인 혁신형기업 도약자금으로 최대 3억원 이내 3%의 저리 대출로 도시제조업 소공인 특화 경영자금을 본격 지원한다.

'25년부터는 서울형 소공인 특화 맞춤형 대출을 신설하여 소공인 실정에 맞는 저리 대출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제조기업을 지원하고, 집적지별 '찾아가는 금융컨설팅'을 운영하여 융자컨설팅 등 자금관리를 지원한다.

② 수작업 구동 소공인에 대해 센서, 바코드 등 자동화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제조공정 로봇화,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까지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

축한다. '27년까지 400개사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기술교육·훈련을 통해 분야별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전수를 촉진하고자 '27년까지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7천 명을 양성하고, 소공인 사업자(년 100개사) 대상 제조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유통채널 사전교육 및 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제조업의 낮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공인의 자기진작을 위해 2027년까지 주얼리, 의류봉제 등 각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을 300명 발굴·포상하고, 젊은 인재가 산업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소공인 기술경진대회'를 신설,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우수 소공인 현장 투어'를 운영한다.

27년까지 우수 숙련기술인 300명을 선정해 총 20억원을 지원하고(기술장려금 500만원씩), 인증서·현판을 제공해 자긍심을 높인다.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운영하는 G컴팩스를 통해 기술장인과 청년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인력의 도시제조업 유입을 위한 소공인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술혁신, 안전 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이 소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과 지원 인프라 확충이 도시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신규인력 유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 수도권 우수기업 1천 곳 대상 투자유치 안내문 발송

## 9.6. 수도권 소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우수기업 1천 곳 대상 발송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에 꼭! 꼭! 해주세요”

부산시는 오늘(6일) 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우수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2차전지,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강소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투자 의향 기업 발굴에 나서기 위함이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부산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도 알기 쉽게 소개돼 있다. 보조금 신청 요건, 지원 특례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대 333억 원까지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에도, 전국 최대 단량규모 1천7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규모·유형별 다양한 투자보조금과 인센

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대외적으로도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가졌음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에 이어, 오는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트호텔에서 수도권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역량 있는 기업 유치 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올해도 삼성중공업과 한화파워시스템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부산을 선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뛰어난 인적 자원과 산업기반

을 갖춘 최적의 투자처인 '부산'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부산과 동반 성장할 우수한 기업들의 현명한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울릉군,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 점검

울릉군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5일 동안 관내 대규모 투자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연내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울릉군에 부임한 박상연 부군수는 부임 이후 약 2개월간 제4회 섬의 날 및 오징어축제 등 울릉군의 주요 행사 추진과 더불어 태풍 등 재난 대비 점검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등을 파악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왔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어촌뉴딜 300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사업 등 총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024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도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현

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자문도 함께 실시했다.

앞서 울릉군에서는 5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울릉 구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6월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건설기계장비 관리 방법, 건설근

로자 교육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업무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조강제/기자



#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

## 목포 2023 문학박람회

MOKPO LITERARY EXPO

목포문학관 일원 (주행사장) 9.15(금) - 9.17(일)  
북교동 일원 (차별석길) 9.14(목) - 9.17(일)



주최·주관 | 목포시 후원 | 관공거점도시육성사업

# 강원도 중소기업제품이 한자리에!'춘천금빛장터'개최

## 중소기업제품 특별 판매행사 9월 8~9일 2일간 시청광장에서 열려

춘천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를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행사는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8.30.~9.27.) 기간 춘천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KOTRA 강원지원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관내 기업지원 기관이 협업

했다.

중소 및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돕고, 우수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기회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68개 중소·창업기업이 참가하고, 추석 명절 기획상품,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동춘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관하는 춘천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제

철을 맞은 과일 및 채소, 고기류 등을 시식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구매영수증을 통한 경품 이벤트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자선경매, 문화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의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만나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충남도, 여야 의원과 힘 모아 '국비 10조 시대' 연다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현안 설명하며 협조 요청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박완주·이정문·정진석·장동혁·이명수·강훈식·성일종·김종민·이기구·홍문표 의원과 김태홍 지사, 김기영 도 행정

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42건과 △현안 10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주요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으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설립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추천미공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K-헤리티지벨리 조성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천안아산 방음벽 설치 △백제문화촌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낙시복합타운 조성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건조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천안 K-컬처 박물관 등을 설명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조속 건립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금강하구둑 홍수조절 기능개선 건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제도 개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충청권 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홍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온 결과, 역대 최저 정부예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9조 8243억 원이 반영되며, 전년 정부안 대비 1조 1690억 원이 증가했다"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등 일부 사업들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도내 대학 등 참여



충북도는 5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행사를 개최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추진단 구성, 특화단

지 지정 개요, 추진단 역할 소개, 추진단 현판 전달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진단장을 맡은 충청북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충북 이차전지 산업육성협회, RIS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에 소속된 추진단 구성원과 KTC, KCT,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 지열켄 등 이차전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

해 특화단지 세부구성계획 수립, 기업애로 발굴·해소, 투자유치 지원, 홍보 등 핵심적인 기능과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지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사업 기획·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차전지의 경우, 우리 도를 포함하여 4개 지자체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이차전지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이차전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금일 출범한 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추진단장(경제부지사)을 중심

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메시지를 통해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7월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오창과학산단단지 일원 4개 산업단지, 약 442만평(14,609,355.4m<sup>2</sup>)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지자체가 됐다.

고정화/기자

# '이순신의 생애' 아산시 공직자에게 주는 울림은?

##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첫 강연

아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3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첫 강연을 개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소장은 '이순신의 생애와 교훈'이란 주제로 장군의 일생을 소개했다.

제 소장은 장군이 32세에 무과에 합격해 노량해전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22년간의 군 생활 동안 청렴과 강직함을 지키기 위해 강도와 승진을 반복해야 했던 절곡의 삶을 설명했다.

특히 장군이 두 번이나 백의중군(벼슬이나 직위가 없이 군대를 따라 전장에 참전)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할 때는 "요즘 '백의중군하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장을 80대나 받고 모든 직위를 버리고 전장에서 복무도 해야 한다. 장군은 두 번째 백의중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3년 상을 치르지도 못했다"라고도 했다.

제 소장은 "20세기 때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신격화할 정도였다. 그의 정신을 나라 사랑, 정의 실천, 책임 완수, 창의(혁신)로 개혁, 희생 감내 등 5대 정신으로 대변했다"며 "21세기 와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조명한다. 누구나 노력하면 장군처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 군인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선배로서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백절불굴(百折不屈, 수없이 많이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냄) 군인정신의 표상이자, 미래 전쟁을 대비한 혁신적 리더이자 전략가였다"고 덧붙였다.

강의에 앞서 박경귀 시장은 "아산은 이순신의 도시로서, 장군의 서거일(11월 19일)을 기리기 위해 17~19일 순국제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장군의 정신과 열을 배우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아산시의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이순신을 잘 알아야 하고, 인간 이순신을 이해해야 한다. 장군의 리더십과 분투했던 삶을 내면화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간부 공무원 승진 평가에 아카데미 참여 실적을 반영하려 한다"고 무게를 실었다.

한편, '2023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후 △2강 아산에서의 이순신 행적과 추향 △3강 이순신의 승리비결 △4강 이순신과 아산 △5강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흐름과 평가 △6강 이순신 승리의 리더십 △7강 임진왜란과 조선 △8강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 △9강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 △10강 인간 이순신의 리더십과 명량해전 등이 이어진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추석 명절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점검 실시

태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관내 설치된 전기차충전 충전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의 관리상태, 바닥 충전구역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동시에, 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주요 관광지 내 충전시설도 점검하여 충전 방해 행위 및 고장에 따른 안내문 부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 등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안내문 부착 등

을 통해 명절기간 동안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구역의 고장 여부, 주변 청결상태, 전기차 진입 편의에 대한 사항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고장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며 향후 태백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 원주시, 한라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단 출범

## 지난 5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출범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지원하고 한라대학교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단 출범식이 지난 5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김응권 한라대학교 총장, 정몽원 H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기업 임원진,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주시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6월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54.7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2028년까지 투입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여 모빌리티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한라대학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주시가 모빌리티 산업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노력이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천안시, '포용형·체감형' 청년정책 수립 중

천안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신동헌 부시장과 청년정책 추진사업 부서장·팀장, 청년정책위원, 청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토의 및 질의응답 등 의견 수렴으로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1차 천안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 기간 만료 및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수정안(2023.3.29.) 반영과 동시에 전환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024~2028)의 천안시 청년정책의 비전, 전략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이다.

시는 사회·경제·정책적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천안 청년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용형·체감형' 청년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부시장은 "청년정책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주요 계층인 청년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며,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한다"며, "각 추진 부서에서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금천구, 안전한 추석 귀성길 자동차 무상점검 해드려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구청 주차장 출입구 옆에서 운영

금천구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귀성길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구청 주차장 주 출입구에서 진행된다. 구민 또는 금천구 직장인 소유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회'에 소속된 정비 요원 70여 명이 참여한다. 정비 요원은 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안전 운행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차량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할 계획

이다.

점검 사항은 ▲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의 각종 기름(오일) 점검 ▲ 유리 세정액, 냉각수 보충 ▲ 각종 전구류 점검 및 교환 ▲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벨트, 배터리 점검 등이다.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점검표를 배부하여 정비업체에서 점검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구민과 직장인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고향 방문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환신/기자



### 안산시 단원구, 111개 직업소개소 방문지도 점검 벌인다

안산시 단원구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11개소(유료 106, 무료 5)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 소개요금 과다징수 ▲ 보증보험 유효기간 ▲ 각종 장부 작성·보관 상태 ▲ 변경신고 등록 위반사항 ▲ 상담원 이외의 자 불법 상담행위 등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위

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체 36곳 전수 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36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필수 요건인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

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업체의 적발 및 처분보다는 법령교육 및 계도를 통해 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오산시 여성안전 특별점검반(TF) 개최

오산시가 지난 30일 시청(별관) 다목적실에서 여성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오산시 여성안전 특별점검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여성안전 특별점검반(TF)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부서별 여성 안전 증진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올해 3월 처음 구성됐다.

두 번째 개최된 특별점검반(TF)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인 가족보육과를 비롯하여 안전정책과, 주택과, 스마트교통안전과, 유관단체인 오산시 의용소방대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계자가 모여 부서별 자원을 공유하고

기관별 원활한 연계를 통한 범죄 취약지역을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1호선 경부선 인근 오산동 원로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이 추진한 여성 안전 모니터링 결과로 ▲여성 안전을 위해 원로단지 등에 CCTV 녹화 안내판 설치 ▲가로등 추가 설치 ▲경부선 지하차도 환경정비(벽화) 등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은 "여성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성안전 특별점검반(TF) 부서 및 유관단체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회의에서 는

의된 개선 의견들이 지역의 범죄 취약지역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을 이끈다"

### 직속기관장·교육장·본청 교육(정책)국 과장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은 5일 오후 2시부터 직속기관장·교육장·본청 교육(정책)국 과장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전달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전환 △학교 시설 사업 이해 △하반기 주요 업무 전달과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 홍보 영상 시청, 9월 1일자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 소개, 전제민 구글코리아 이사의 디지털 전환을 맞이한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트렌드' 특강과 시설과의 '학교 시설 이해하기' 연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국장·정책국장의 부서별 하반기 중요 추진 사업 안내 및 교육감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교육국에서는 학생 질문대회 운영, 수업 전문가 심사,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교원

존중 풍토 조성,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정책국에서는 온지식인 선정, 늘봄학교 시범 운영, 세계 시민교육 국제포럼, 경북 창의 과학 한마당,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2024년도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2학기 시작을 맞아 겸양의 자세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고, 담배 연기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 2023학년도 흡연 예방 주간 실시

### 조중래 교장, "적극적, 효과적 흡연예방교육 실시로 학생들 금연 인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

청송고등학교는 흡연 예방 교육주간(2023. 9. 4.~9. 8.)을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송고등학교는 흡연 실태 조사 결과 현재 학생 흡연 실태 0%로 나타났고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더욱 더 흡연을 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담배는 폐암 원인의 85%이며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약 30%에 해당하므로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캠페인은 고등학교 학생회를 선두로 진행된 금연선약서 및 금연포스터등의 금연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금연선포식을 하며 평생 흡연하지 않음을 굳건히 다짐하여 전교회장의 담배모양 자르기 등의 퍼포먼스 등도 시행하였다.

흡연 예방 교육 주간에 실시된 흡연 예방 N행시 짓기 문예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깨달음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행사에 참가한 김OO학생(청송고 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흡연예방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고,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고, 친구들에게도 흡연하지 말자고 얘기해주는 알리미 역할을 한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조중래 교장은 "이번 캠페인 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교육행정 148명 등 6개 직렬 195명 합격



경북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202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 195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은 194명 선발에 1,132명이 응시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6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한 인원은 195명으로, 이는 동점자 및 양성평등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인원이며, 최종합격자 중 장애인 5명, 저소득층 4명을 선

발해 공직 임용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일반) 129명 △교육행정(장애) 5명 △교육행정(저소득) 4명 △교육행정(울릉) 10명 △전산 13명 △사서 6명 △조리(일반) 4명 △조리(보훈청) 2명 △조리(울릉) 2명 △기록연구 8명 △조리(일반 경력경쟁) 3명 △운전(일반 경력경쟁) 6명 △운전(봉화 경력경쟁) 1명 △운전(울진 경력경쟁) 1명 △운전(울릉 경력경쟁) 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67명(34.4%), 여자 128명(65.6%)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2명(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0명(25.6%) 40대 22명(11.3%) 50대 1명(0.5%)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50세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1일 경북교육청 오피스텔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고,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신규 임용예정자 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AI KOREA 2023 'AI 교육관' 운영

### 초·중·고·특수 24교와 시교육청 참가해 AI 기반 교육사례 소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6일부터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 2B~3홀에서 열리는 'AI KOREA 2023'에 인공지능 교육사례 공유와 가치확산을 위한 'AI 교육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3 K-ICT WEEK in BUSAN'의 3가지 섹션 행사 중 하나로, 'AI 도시 부산'을 위한 산학관 4차 산업기술과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AI 교육관'은 초·중·고·특수학교 등 24교와 시교육청이 참가해 25개 부스를 운영한다. 학교 부스는 ▲AI 교육 확산과 활성

화 추진을 위한 정책을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 ▲정보 교과 수업 확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AI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AI 융합 교육 중점고등학교 ▲ABM(AI, Bigdata, Metaverse)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사동아리 등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사례를 소개한다.

교육청 부스는 김재홍 남항초 교사의 '다행복학교에서의 AI & SW 체험 페스티벌 운영' 수업사례를 시작으로 교사 10명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사례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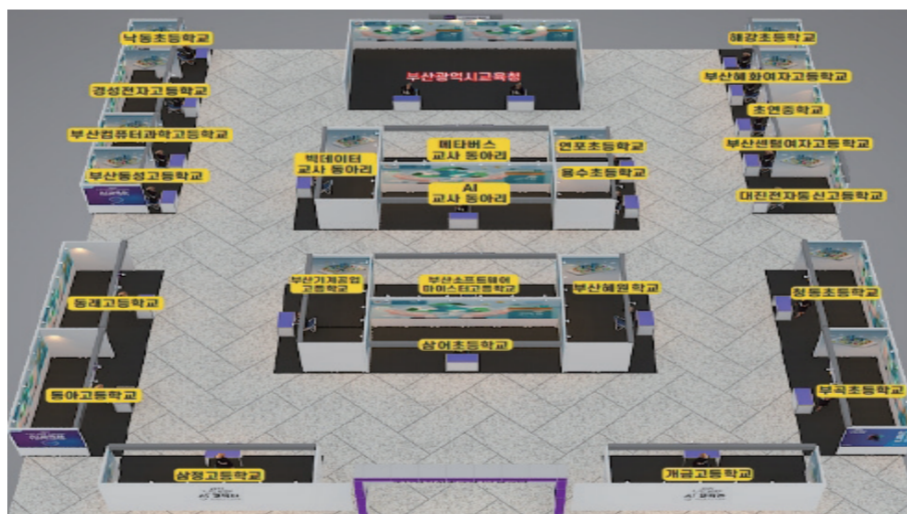
부산교육청은 행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

해 실시간 중계한다. 또, 행사 후 학생과 교원이 AI 교육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AI 교육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행

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달라질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일상의 문제해결과 미래 역량 함양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학교도서관 학부모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안계초등학교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지공심 고취

### 박명호 교육장,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화), 안계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학부모자원봉사자들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 하였다 책나눔 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 열람·대출 등 학교도서관

관 운영을 지원하는 봉사자로 독서경험 활동이 풍부한 14명의 재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와 독서지도 교육, 자료 관리 등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독서법과 독서문화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독서 인식을 제고하였다.

박명호 교육장은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동은 자녀 독서교육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와 독서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따뜻한 교육혁명, 행복한 학교 경북교육이 만들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인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동래구, 대교단과 함께하는 대학생 멘토링 성료

부산 동래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부산권역본부(이하 '대교단')와 함께 진행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관내 교육소의 계층의 학습역량 강화, 진로 탐색, 올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고 지역내 교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3월 동래구와 대교단의 업무협약 체결 후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협업체 대학생 멘토 6~7명씩 센터를 방문하여 음악, 체육, 과학, 미술 등 주제별 강좌를 각 6~8회차, 총 29회 진행하였으며 멘토 26명, 멘티 52명이 참여했다.

이번 진로 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 학생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토요일이었다"며 "다음에도 예체능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멘티와 멘토가 토요일마다 만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서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배웠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 선정

## 2025년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서 최종 국제 인증

경북도는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문경 돌리네습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문경 돌리네습지는 2025년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멸종위기종 9종을 포함한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습지 형성이 어려운 돌리네지형에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는 습지보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2015년 제12차 람사르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17개국 43곳의 습지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국내 습지도시는 2018년에 인증받

은 경남 창녕 우포늪, 강원 인제 암산용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남 순천만갯벌과 2022년에 인증받은 전북 고창운곡습지, 충남 서천갯벌,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등 총 7곳이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농, 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 고유의 인증 상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장은 "최근 기후 위기 사례를 보듯이 이제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후보지 선정은 문경을 넘어 경북의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 남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 체험활동 '깨끗한 바다 다시 시작해' 실시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난 2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주말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주말 체험활동은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해양과학의 호기심 및 탐구성을 함양하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 환경 오염의 원인과 문제를 공감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해양 플라스틱 ZERO!', '바다를 배워요!' 등 해양과학 및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탐구 학습과 체험을 통해 무궁무진한 해양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환경보호 실천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

졌다.

장명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주말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과학의 탐구심을 함양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져 해양과학의 미래인재로 한 걸음 다가갈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영덕군,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모집



영덕군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의 자녀 중 교육활동에 모범적인 중·고등학교

는 대학생으로, 선정 인원은 총 18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이며, 관내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이 학교당 1~2명 지원자를 직접 영덕군에 추천하고, 대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복지대상자 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면 된다.

영덕군은 오는 10월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해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7명에게 1인당 50만 원, 대학생 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권순학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학업에 열정을 보이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경주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SNS 홍보 본격 시동

## 13일까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응원 댓글 이벤트 진행

경주시가 이달부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공식 SNS를 개설하고,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경주 유치 당위와 효과 등을 소개하며,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4일부터는 인스타그램(2025apec\_gyeongju)을 통해 팔로우와 응원 댓글 참여를 통한 첫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응원 댓글 이벤트는 APEC 경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우와 함께 해당 게시글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2025 APEC 경주유치 홍보 공식

SNS계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별 각종 이벤트와 함께 APEC 관련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2025 APEC 경주유치 희망 포럼'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 유치 열기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공식 SNS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주요 활동과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경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경주 유치의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대를 위해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올해 말 유치제안서 제출에 이어 내년 4월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

망된다"며, "SNS 채널 및 서포터즈 운영,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략적 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치신청서 작성, 현지실사 및 프리젠테이션(PT) 등 공모절차 준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구미시,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개최

## 대구경북신공항 경제권과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

구미시는 6일부터 3일간 구미코에서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공군이 후원하고,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한다.

6일 개막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창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박철호 공군군수사령관, 천르바오 주부산중공총영사 등 주요 내빈과 관람객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와 지역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70여 개의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기업 전시 및 홍보, 항공, 방위, 물류 전문 세미나, 산업 협력을 위한 MOU, 진로 희망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콘서트, 관련 대학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한 국내, 외 기업 및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과 솔루션을 공유하며, 참여기업 및 참관객은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를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남방항공(중국), 엠브레어(브라질), ATR(프랑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도레이첨단소재, STX에어서비스, UPS, FedEx, 순펄(중국) 등이 참여하며,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에서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인 AIRBUS, IAI, SAFRAN, GE Aerospace, BELL 등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북도와 구미시는 해외 선도업체와 절충교역이 가능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존 전자, 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흥, 소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최대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시는 최근 반도체특화단지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선정 등을 발판 삼아 첨단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김창호 구미시장은 행사 2일차에 투자설명회 및 기업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킹 오찬을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구미시 세일즈에 나설 예정으로,

시는 단순한 전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성과가 있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첫 회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기술과 혁신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써, 참가 기업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박람회 참여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을 예정이다. 구미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구미 미래도시 포럼', 경상북도와 함께 기업·대학교·산하기관·도내 각 시군의 협력 네트워크인 '항공산업 싱크넷' 발족, 항공전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항공물류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시행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의 경제권과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 대구 북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반점착한가게 현판 전달

대구 북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5일 착한대구 캠페인에 동참한 광명반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광명반점 신수호 대표는 "저희 광명반점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칠성동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김은경 공동위원장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해 준 광명반점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칠성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를 말하며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하다.

광명반점에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칠성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

중하게 쓰일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15th  
**H.O.T** **페스티벌**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영양고추는  
언제나  
올다!**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